

# 미래보장 연금?... 수익률 바닥 ‘불안하기만 한 노후’

당신의 ‘퇴직연금’은 안녕하십니까

가입자 610만, 적립액 189조원 달해  
DC형 사업자 74% 수익률 2% 미만  
3% 이상 달성 ‘전무’, 27곳은 1%대

수익률 떨어지는데 체감 수수료율 ↑  
“수수료율의 적절한 절대수준 규정  
금융사들 암묵적 담합 등 조사 필요”

지난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된 이래 지난해 가입자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가입자의 체감 수수료율은 높아지면서 퇴직연금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선 국민연금의 자금고갈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결국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시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노후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직장인의 경우 해마다 적립되는 퇴직연금 수익률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느는데 수익률은 ↓

지난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퇴직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전체 가입 근로자는 610만4704명으로 지난해 579만6986명에 비해 5.31% 늘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019년 말 기준 2018년(167조1000억원)보다 13.0% 늘어난 18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구성비는 DB형(확정급여형)이 50.0%로 가장 많았으나 1년 전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DC형(확정기여형)은 3.1%포인트 증가한 47.0%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과 함께 직장인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상품으로 꼽히고 있는 퇴직연금이지만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자별 DC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

(단위:%, 2019년 2분기 말 기준)

사명	수익률	사명	수익률
KDB생명	0.07	BNK경남은행	1.7
한화투자증권	0.44	DGB대구은행	1.7
대신증권	0.75	KB국민은행	1.71
신영증권	0.85	KB손보	1.82
신한금융투자	1.08	제주은행	1.82
삼성증권	1.22	신한은행	1.83
NH투자증권	1.26	한화생명	1.87
유안타증권	1.28	삼성생명	1.92
한국투자증권	1.29	삼성화재	1.95
KB증권	1.32	롯데손보	1.96
현대차증권	1.46	동양생명	2
하이투자증권	1.48	하나금융투자	2.04
NH농협은행	1.51	미래에셋대우	2.12
우리은행	1.59	현대해상	2.13
KDB산업은행	1.64	흥국생명	2.17
교보생명	1.65	DB손보	2.21
BNK부산은행	1.65	DB생명	2.22
IBK기업은행	1.67	미래에셋생명	2.23
KEB하나은행	1.67	푸른현대생명	2.26
신한생명	1.68	한화손보	2.27
광주은행	1.68	IBK연금보험	2.38

자료=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중 31곳(73.8%)의 직전 1년 수익률이 2% 미만에 그쳤다. 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27곳에 달하는 사업자가 1%대 수익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1.08%), 삼성증권(1.22%), NH투자증권(1.26%), 유안타증권(1.28%), 한국투자증권(1.29%), KB증권(1.32%), 현대차증권(1.46%), 하이투자증권(1.48%), NH농협은행(1.51%), 우리은행(1.59%), KDB산업은행(1.64%), 교보생명(1.65%), BNK부산은행(1.65%), IBK기업은행(1.67%), KEB하나은행(1.67%), 신한생명(1.68%), 광주은행(1.68%), BNK경남은행(1.7%), DGB대구

은행(1.7%), KB국민은행(1.71%), KB손보(1.82%), 제주은행(1.82%), 신한은행(1.83%), 한화생명(1.87%), 삼성생명(1.92%), 삼성화재(1.95%), 롯데손보(1.96%) 순이었다.

특히 KDB생명은 수익률이 0.07%에 그쳤고, 한화투자증권(0.44%), 대신증권(0.75%), 신영증권(0.85%) 등도 수익률이 1%를 넘기지 못했다.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직전 1년간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2%를 넘는 사업자는 삼성증권(2.13%)과 롯데손보(2%) 두 곳에 불과했다.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퇴직연금이 직장인의 노후 보장 수단이란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들이 생업에 쫓기는 탓에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을 틈타 퇴직연금 사업자는 수수료 취득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금형 퇴직연금 등 새로운 정책을 적극 논의해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 체감 수수료율 ↑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가입 고객의 체감 수수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 수익률은 평균 1.88%에 그쳤으나, 총비용부담률은 0.47%에 달했다. 총비용부담률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연평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의 체감 수수료율도 높아졌다.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퇴직연금사업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을 기반으로 1년 만기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의 자산운용이 이뤄지

고 있다. 이에 따라 상품의 운용수익률 또한 시장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거 고금리 시절에는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양호해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연평균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소비자의 퇴직연금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퇴직연금의 가입자와 사업자 사이의 협상력이 대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일시금을 선택하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고, 금융회사의 수수료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해 가입자의 수수료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로가 제한적이다. 반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수수료의 구조 및 부과 금액 등에 대해서 투명하게 가입자에게 알릴 유인이 부족하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존재하지만,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는 대동소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퇴직연금 수수료율에 대한 적절한 절대수준을 규정하는 한편, 금융사들의 암묵적 담합에 의해 퇴직연금 시장이 구성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독정책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시장규모 200조’ 점점 커지는데... 기금형 법안은 ‘폐기 위기’

퇴직연금 의무가입에 유치경쟁 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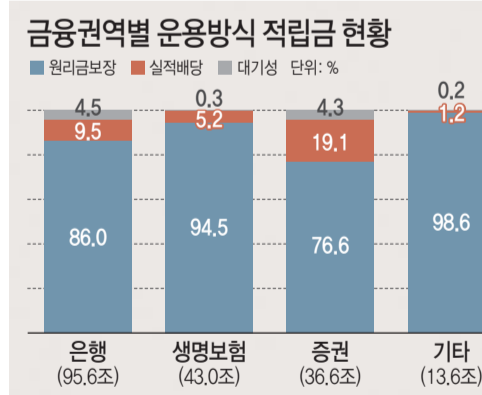
수익률 개선 위한 ‘기금형 연금제도’  
국회 연일 파행에 법안통과 불투명  
내달 문턱 못 넘으면 내년 5월 폐기

2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선점하려는 은행, 증권 등 금융사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그러나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그치는 등 바닥을 치고 있다. 정부는 낮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등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퇴직연금 시장 200조...고객 잡아라

1일 정치,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영세기업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기준 50.2%에 불과한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의 골자다.

또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의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지난 2018년 말 190조원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해 상반기에는 200조원을 돌파했다.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강자는 은행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적립 비중은 은행사가

50.6%, 생명보험사가 22.7%, 증권사가 19.4%, 손해보험사가 6.1%, 근로복지공단이 1.1%로 은행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퇴직연금 운용관리 수수료를 내리면서 기존 고객을 잡고 신규 고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 대신 수수료를 낮춰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걸도는 퇴직연금 법안...자동 폐기 위기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면서 퇴직연금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업장 내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합하면 연금기금처럼 ‘큰손’이 되는 만큼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다.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다. 외부 투자전문 기업 또는 기관 등 운용 위탁사에 퇴직연금 투자를 맡기면서도 노동자가 직접 연금 관리와 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됐으나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했다.

만약 올해 2월 임시국회 때까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2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희주 기자 hj89@